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제주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3. 2. 15(금) 15:00 ~ 18: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
- 주최 및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개최 목적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사이 출생)와 은퇴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노동 시장, 자산시장 그리고 국가재정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칠 것임
- 제주지역은 청정 환경과 아름다운 풍광을 지녀서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부머와 은퇴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기에 적절한 정주환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큼
- 또한 타 시·도 거주자들이 제주로 귀농·귀촌하여 제주로 이주·정착하여 제주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있음. 이러한 귀농·귀촌 희망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제주에는 매년 외국인 거주자(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포함)가 1,000여명씩 증가하여 제주가 국제자유도시와 다문화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귀농·귀촌인, 외국인 등 가칭 제주입도 1세들이 제주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정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본 정책토론회에서는 제주이주 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아울러 제주 정착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생산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개요

- 일 시 : 2013. 2. 15(금) 15:00 ~ 18: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
- 주최 및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

□ 행사 프로그램

진행 : 박원배 연구실장

구 분	시 간	담 당
등 록	14:40~15:00	참석자 등록
개 회 사	15:00~15:10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주 제 발 표	15:10~15:40	제주정착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휴 식	15:40~15:50	Coffee Break
총 합 토 론	15:50~17:50	좌장 - 김진영 제주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정수 석부작공원 신비원 원장 - 김정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김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권혁란 하우스 레서피 대표 - 박종구 농업기술원 귀농·귀촌 모임회 회장 - 박현정 모루농장 농업회사법인 대표 - 손이리나 결혼이민자 - 위영석 한라일보 정치부차장 - 장길남 농업기술원 농업교육담당 - 조옥란 결혼이민자 - 조재영 자원봉사(거문오름 문화해설사) - 지금종 조랑말 박물관 관장 - 홍창욱 무릉외갓집 실장 - 황영집 전원요양원 원장 - 황준욱 소수연구원 원장 - Marsha Bogolin 도외국인 자문위원회 위원
자 유 토 론	17:50~18:00	Floor 토론
폐 회	18:00	사회자

목 차

■ 주제발표

- 제주정착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 7
고 승 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료

- 김 정 수 (석부작공원 신비원 원장) / 45
- 김 정 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47
- 김 창 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50
- 권 혁 란 (하우스 레서피 대표) / 52
- 박 종 구 (농업기술원 귀농·귀촌 모임회 회장) / 54
- 박 현 정 (모루농장 농업회사법인 대표) / 56
- 손 이 리 나 (결혼이민자) / 58
- 위 영 석 (한라일보 정치부차장) / 60
- 장 길 남 (농업기술원 농업교육담당) / 62
- 조 옥 란 (결혼이민자) / 65
- 지 금 중 (조랑말 박물관 관장) / 67
- 홍 창 욱 (무릉외갓집 실장) / 70
- 황 영 집 (전원요양원 원장) / 71
- 황 준 욱 (소수연구원 원장) / 76
- Marsha Bogolin (도외국인 자문위원회 위원) / 78

개 회 사

지해를 상징하는 뱀의 해가 시작된 지도 한달여가 지나고 봄의 기운이 다가오는 요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주 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그리고 주제발표를 준비해주신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님, 세미나를 이끌어주실 김진영 제주대학교 교수님과 여러 토론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들의 급격한 증가는 노동시장과 자산시장 그리고 국가재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 예상됩니다.

우리 제주지역은 청정환경과 아름다운 풍경을 지니고 있어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부머와 은퇴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기에 적절한 정주환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최근 타 시·도 거주자들이 제주로 이주·정착하여 제주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귀농·귀촌 희망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에는 매년 외국인거주자가 1,000여 명씩 증가하여 제주가 국제자유도시와 다문화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도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귀농·귀촌인, 외국인 등이 제주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정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는 제주 정착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주이주 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생산적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주관 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주제발표 및 토

론에 흔쾌히 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계사년 한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제주발전연구원장 양 영 오

주제발표

제주정착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고 승 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주정착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2013. 2. 15

제주발전연구원

고승한 (연구위원/사회학 박사)

목 차

I 새로운 이주유형 등장

II 제주이주와 정착의 변화 과정

III 제주정착주민의 정주여건 주요 특성 및 문제점

IV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I 새로운 이주유형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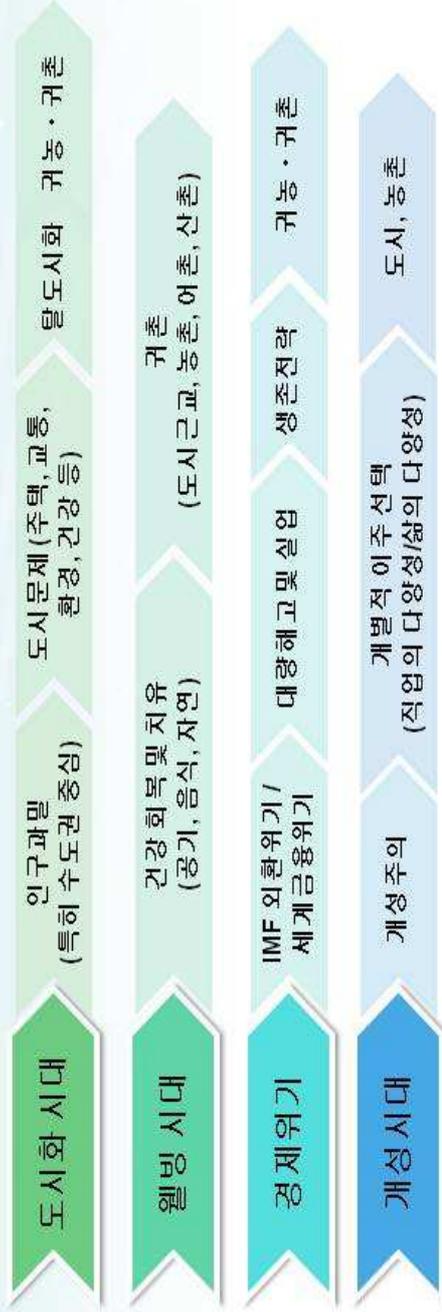
1. 과거 이주요인



I 새로운 이주유형 등장

2. 이주유형의 변화

❖ 새로운 이주(new migration) 촉발 요인



I 새로운 이주유형 등장

2. 이주유형의 변화

❖ 새로운 이주(new migration) 촉발 요인



I 새로운 이주유형 등장

2. 이주유형의 변화

- ❖ 새로운 이주(new migration)의 특성
 - 농촌생활보다 도시생활의 불편(교통, 범죄, 환경, 주택문제 등)
 - 이주의 글로벌화 증대(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사업가 등)
 - 귀농·귀촌현상의 확산
 - 베이비부머 혹은 은퇴자의 이주 증가
 - 가족전체(혹은 친족)보다 개인 위주의 이주 급증(직장, 학교 등)

I 새로운 이주유형 등장

2. 이주유형의 변화

❖ 새로운 이주유형

휴식 · 치유형 이주

- 질병 치유 및 건강 회복 (예)암, 아토피, 스트레스 등

생존 · 생계형 이주

- 이주 전에 은퇴, 해고 및 실업 발생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

휴양 · 여가형 이주

- 경제적 여유, 시간 충분, 걱정 근심 없는 경우

탐험 · 도전형 이주

- 이주 후 인생의 의미와 보람 찾기 (제2의 인생 시작)

II 제주이주와 정착의 변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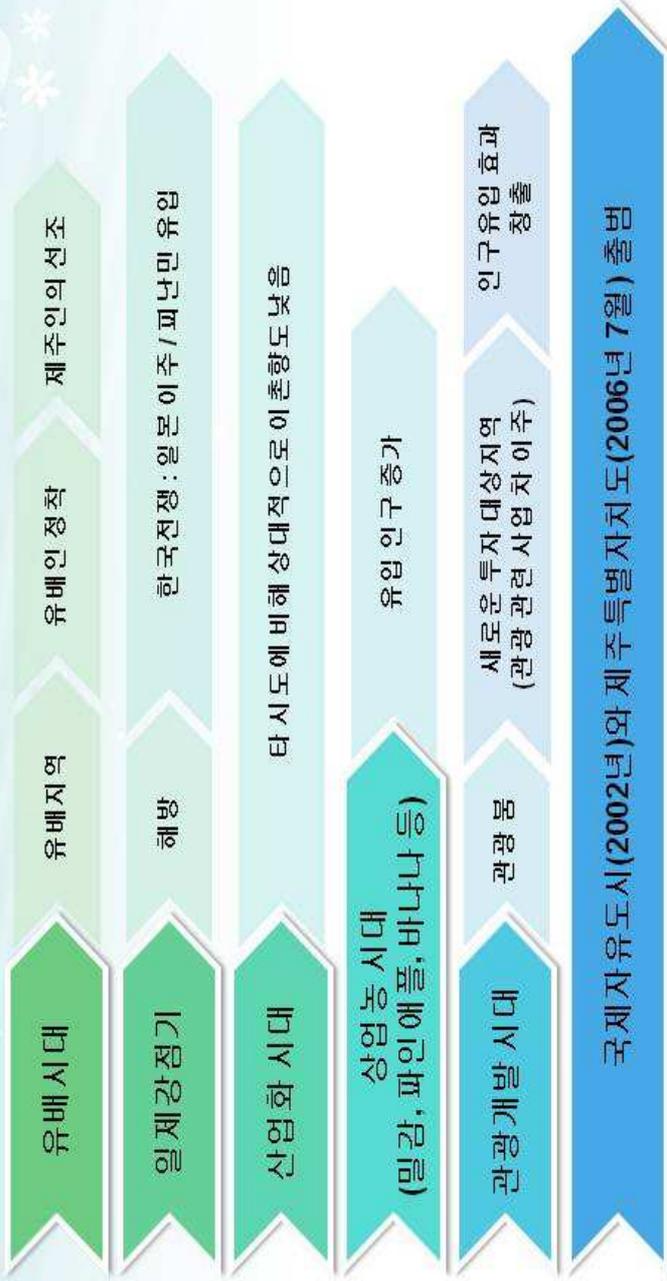
1. 이주와 정착과의 관계

이주 전	이주 후	성공적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 거주지 만족•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안정• 거주지 불만족• 고립/무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생• 거주지 만족• 협력 · 봉사

II 제주이주와 정착의 변화 과정

2. 제주이주의 역사와 촉발요인

❖ 제주이주의 역사



II 제주이주와 정착의 변화 과정

2. 제주이주의 역사와 촉발요인

❖ 2000년대 이후 제주이주의 촉발요인

글로벌 시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증가

지방정부의 외자 및 기업 유치

- ▶ 외국인 투자 8개 사업 (총 외자투자액 2,355억원, 완료 201억원)
- ▶ 수도권기업 이전 (33개 기업, 647명 고용 2011.12. 기준)

※ (주)다음, (주)EMLSI, 키벤슨전자(주), (주)INXC 등 6개사

II 제주이주와 정착의 변화 과정

2. 제주이주의 역사와 촉발요인

❖ 2000년대 이후 제주이주의 촉발요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조항 (50만불 투자 시 영주권 발급)

지역 균형발전

제주혁신도시 건설

국제자유도시

제주영어교육도시

동아 시아의 휴양·관광도시, 청정자연환경
(세계자연유산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7대자연경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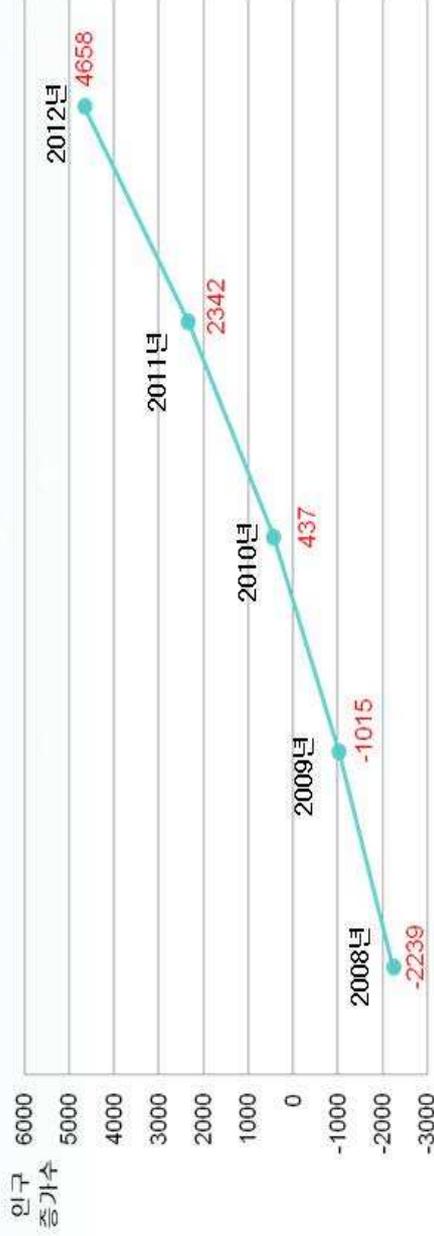
II 제주이주와 정착의 변화 과정

2. 제주이주의 역사와 촉발요인

❖ 최근 제주지역 인구변화 추세 (2012.11월 말 기준)

▶ 인구변화 추세

- 2008년(-2239명)과 2009년(-1015명)만 해도 제주를 빠져나간 인구가 많았으나 2010년(437명) 증가로 돌아선 뒤 2011년(2342명), 2012년(4658명)



II 제주이주와 정착의 변화 과정

2. 제주이주의 역사와 촉발요인

❖ 최근 제주지역 인구변화 추세 (2012.11월 말 기준)

▶ 제주로 전입 인구가 2만3415명, 전출 인구는 1만8757명으로 4658명이 순 증가(인구대비 0.8% 증가) → 도내 총 인구 58만3293명.

▶ 제주시의 인구가이동

- 애월읍(556명), 노형동(542명), 한림읍(370명), 이도2동(347명) 등
총 3007명(0.7% 증가)

▶ 서귀포시의 인구가이동

- 대정읍(247명), 대륜동(181명), 대천동(164명), 남원읍(181명), 성산읍(165명)
등 총 1651명(1.07% 증가)

▶ 전입인구 증가요인 : 귀농·귀촌, 취업, 구직, 직장 이전, 개인 사업 등

II 제주이주와 정착의 변화 과정

2. 제주이주의 역사와 촉발요인

❖ 최근 제주정착주민의 유형

▶ 결혼이민자 (특히 여성)

다문화가족연도별 현황

(단위:명)

구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증감)
	계	남		계	남		계	남		
		여	여		여	여		여	여	
2007	948	84	864	603	62	541	345	22	323	26.7%
2008	1,201	95	1,106	842	76	766	359	19	340	26.7%
2008	1,444	94	1,350	1,006	79	927	438	15	423	20.0%
2010	1,614	95	1,519	1,098	77	1,022	515	18	497	11.8%
2011	2,007	147	1,860	1,379	121	1,258	628	26	602	24.3%
2012	2,158	167	1,991	1,490	142	1,348	668	25	643	7.5%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내부자료」 2012.1.1. 기준.

II 제주이주와 정착의 변화 과정

2. 제주이주의 역사와 촉발요인

❖ 최근 제주정착주민의 유형

- ▶ 외국인 (원어민 강사,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거주 외국인 현황

(단위:명)

구분	합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 자녀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재외 동포	기타	소계	혼인 귀화자	기타 사유	
제주시	5,925	4,440	1,831	1,024	781	256	508	421	355	66	1,104
서귀포시	2,574	1,883	1,086	461	118	95	123	215	167	48	476
합계	8,499	6,283	2,917	1,485	899	351	631	636	522	114	1,580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내부자료」 2012.6. 기준.

II 제주이주와 정착의 변화 과정

2. 제주이주의 역사와 촉발요인

❖ 최근 제주지역 인구변화 추세 (2012.11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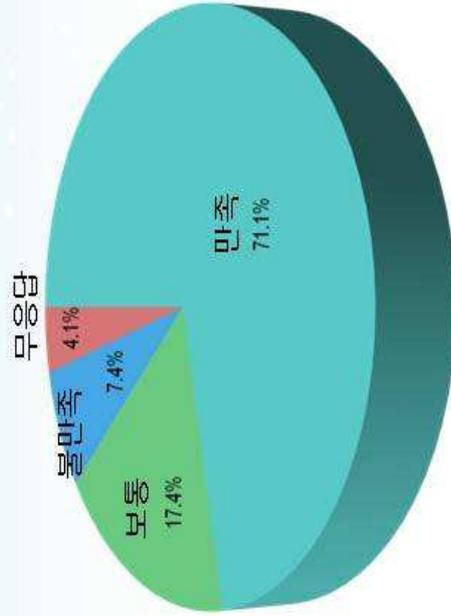
- 귀농·귀촌인
 - 2001 ~ 2012년 제주시 (837명, 도내 귀농·귀촌인 포함)
 - 2008 ~ 2012년 서귀포시 (823명, 도내 귀농·귀촌인 포함)
-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
 - 타 시·도 거주 베이비붐 세대 (1995년~1963년생)의 제주 이주 및 정착

III 제주정착주민의 정주여건 주요 특성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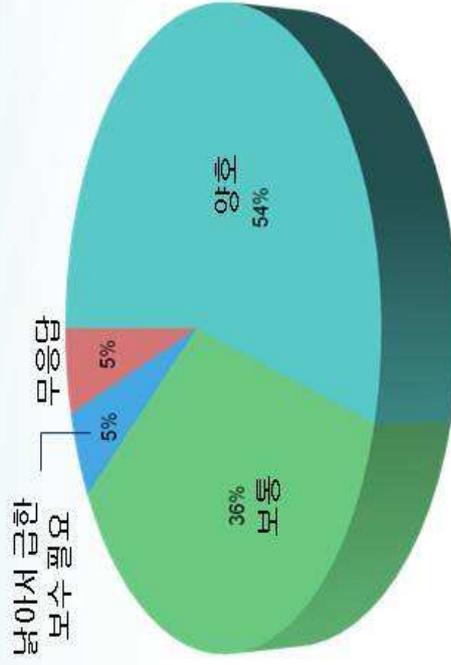
1. 물리적 정주여건

❖ 여성결혼이민자

▶ 생활만족도



▶ 주택상태



※ 자료 : 「2007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2007. 12.

III 제주정착주민의 정주여건 주요 특성 및 문제점

1. 물리적 정주여건

❖ 외국인

- ▶ 원어민 강사
 - 학원 근처 원룸 혹은 빌라 임대 거주
- ▶ 외국인 노동자
 - 농장, 양식장, 공장 등 관리동에 거주
- ▶ 일반 외국인
 -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등

❖ 귀농·귀촌인

- ▶ 마을의 빈집 리모델링, 임대 거주 혹은 단독주택 신축 → 귀농인
- ▶ 단독주택(별장식), 펜션, 조림식 건물 신축(작업실 등) → 귀촌인

❖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은퇴자

- ▶ 이주준비 → 주택구입 혹은 신축
(별장식 단독 주택, 펜션, 빌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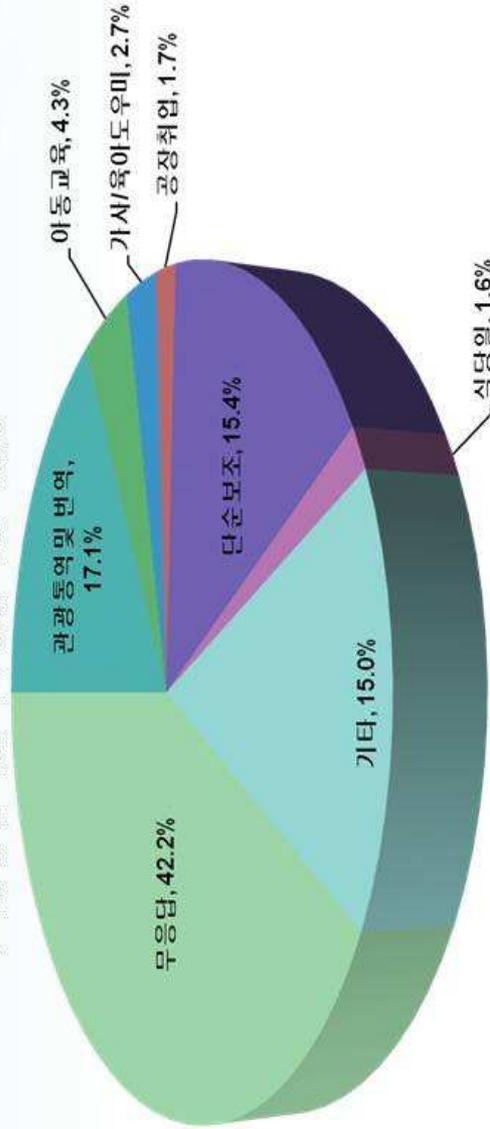
III 제주정착주민의 정주여건 주요 특성 및 문제점

2. 경제적 정주여건

❖ 제주이주 및 정착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한

- 산업구조의 취약성 (농업 및 관광·서비스산업 중심)
-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단순보조 직종)의 제한적 취업기회 제공

〈 여성결혼 이민자의 취업희망 직종 〉



※ 자료 : 「2007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와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2007.12.

III 제주 정착주민의 정주여건 주요 특성 및 문제점

2. 경제적 정주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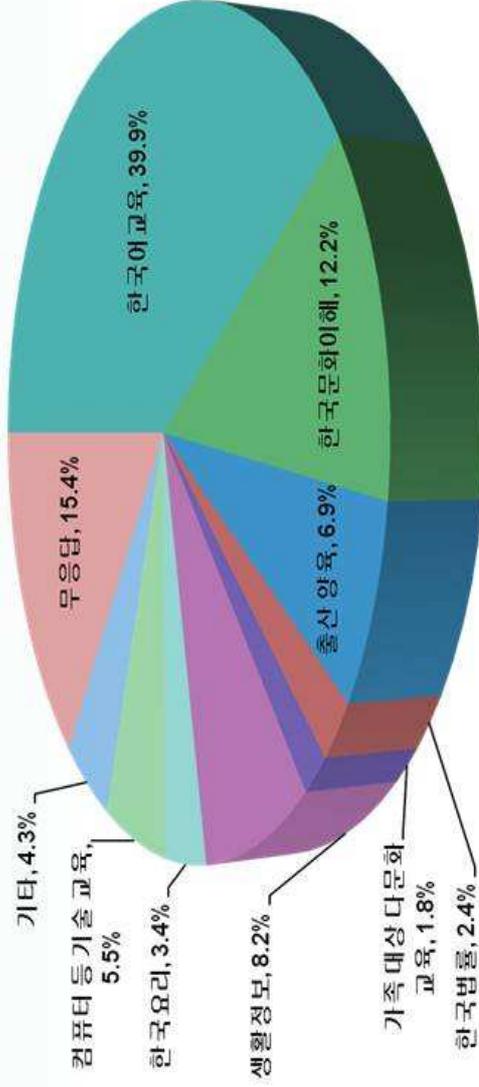
- ❖ 제주이주 및 정착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한
 - 일반 외국인의 고용시장 제약 (외국기업 유치 혹은 다국적 기업 진출 미미)
 - 외국인 노동자
 - (소위 3D 업종종사 : 축사관리, 영세중소기업, 광어양식장, 농장 일꾼 등)
 - 귀농 · 귀촌인에게는 취업기회 제공 (영농활동, 취미농, 노후준비, 자발적 가난)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의 제2인생을 위한 취업 욕구 증대
(전문성 활용할 수 있는 고용시장 여건 미형성)
- ❖ 외지인 투자가 지역고용시장의 확장과 연계 불충분
 - 양질(퀄리티, 번듯한)의 일자리 창출의 한계
- ❖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주택문제가 시급 해결 사항

III 제주정착주민의 정주여건 주요 특성 및 문제점

3. 사회·문화·교육 정주여건

- ❖ 제주이주 및 정착주민에 대한 포용·상생의 인식 미흡
- ❖ 제주어(제주방언)와 제주문화에 이해 프로그램 부족
 -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여성결혼 이민자의 향후 희망 교육분야 〉



※ 자료 : 「 2007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와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2007.12.」

III 제주정착주민의 정주여건 주요 특성 및 문제점

3. 사회·문화·교육 정주여건

❖ 다른 제주이주 및 정착주민에 대한 지원시스템 부재

- ▶ 일반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귀농·귀촌인, 베이비부머, 은퇴자 등

❖ 행정기관 내에 총괄 전담 부서 부재로 단편적·산발적 지원 체계

- ▶ 다문화가족 (도 여성정책과)
- ▶ 다문화교육 (도 교육청)
- ▶ 귀농교육 (도 농업기술원, 서귀포시청, 농협)
- ▶ 외국인 노동자 (도 종합고용지원센터)
- ▶ 일반 외국인, 베이비부머, 은퇴자 등에 대한 지원부서 부재
- ▶ 제주정착주민
[도 자치행정과 -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 43개 읍·면·동 개실 운영 예정]

III 제주정착주민의 정주여건 주요 특성 및 문제점

3. 사회·문화·교육 정주여건

- ❖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의 정책 추진
 - ▶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근거
- ❖ 귀농·귀촌인 대상 지원이 농업교육에 집중 경향
 - ▶ 귀농·귀촌 정착지원 (창업자금, 주택구입, 주택수리 등)
 - ▶ 농업기술, 고충상담 등
- ❖ 제주이주·정착주민과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네트워크 부족
 - ▶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에 네트워킹 형성 (신도농가 멘토링 관계)
- ❖ 제주이주·정착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부족
 - ▶ 귀농·귀촌인 자녀들의 교육문제 (농촌지역 일부 초등학교 폐교 문제)
 - ▶ 제주이주·정착주민 (특히 귀농·귀촌인, 은퇴자, 외국인 등)을 제주사회적응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부재

III 제주정착주민의 정주여건 주요 특성 및 문제점

4. 보건·의료 정주여건

- ❖ 제주이주 및 정착주민이 농촌지역 및 중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경향
 - 보건소 및 병원 접근성 어려움
- ❖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를 위한 노인전문병원 설립 필요
- ❖ 외국인 정착주민을 위한 병원 행정지원 서비스의 미흡
 - 안내, 통역, 의사 진료 서비스 등의 미비
 -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전용 병원’의 부재

IV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1. 정주여건 개선 방향

- ❖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외국인, 결혼이민자, 귀농·귀촌인,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검토
- ❖ ‘맞춤형’ 정착주민지원정책 수립과 전략 구축
 - 정착주민 유형, 특성, 거주지역, 직업, 욕구 등 고려
- ❖ 정착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민간부문 참여 유도
 -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등
- ❖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과 네트워크 강화
 - 마을주민과의 협력·상생·교류 증대
 - 지역사회의 자생단체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와 협력 증진

IV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2. 정주여건 개선의 기본전략

- ❖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립
-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전략
- ❖ 지원 의존형 보다 자립역량 강화
- ❖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전략
- ❖ 교육 ·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
- ❖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의 통합적 전략

IV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3. 향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물리적 정주여건

- ▶ [가칭] 「제주이주 및 정착주민 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
 -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02」`2011에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 이 제시되었으나 미 추진
 -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 필요
 - 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도내 대학 등과 상호 논의 필요

- ▶ [가칭] 「제주 귀농인의 집」 개설 및 운영
 - 충남 서천군의 사례 (예비귀농인의 장기 및 임시 체류 주택, 폐교 리모델링)
 - 예비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제공
 - 정책지원은 행정, 운영은 민간 (예, 귀농인협의회)

IV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3. 향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물리적 정주여건

▶ [가칭] 「제주 이주·정주 촉진사업」 추진

- 일본 북해도 아사부정(厚沢部町) 사례 (町이 100% 투자, 대표이사 町長이 대표이사, 5명의 상근직원, 단기체재, 장기체재, 완전 이주 등 고려 주거시설)
- 행정기관에서 전담부서 설치하여 행정지원 장구 역할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가 100% 출자하여 지방공기업 설립하여 추진
(특히, 마을단위 빈집이나 폐교 활용)

- 제주도의 재정여건상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철저한 경제 수익성 분석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여부 판단 필요

IV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3. 향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경제적 정주여건

▶ 전문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 공공부문에 제주이주 정착주민 가운데 전문성기술, 지식 등과 역량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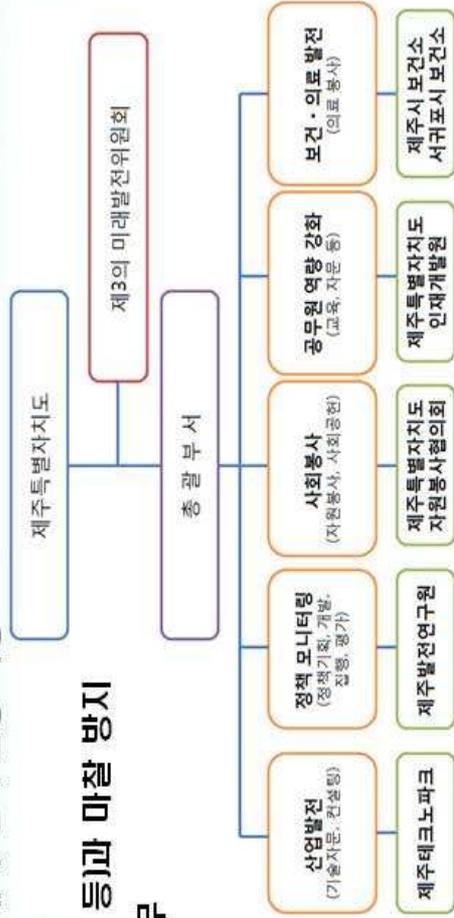
재능 나눔 봉사의식을 가진 정착주민 대상

- 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에서 인력 활용 가능

- 도내 취업인적자원

(청년 일자리, 노인 취업 등)과 마찰 방지

- 다만 임시직 시간제 근무



< 제주이주 베이비부머 은퇴자·정착주민 인재활용 추진 체계 > 29

IV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3. 향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 외국인, 결혼이민자, 베이비부머 및 은퇴자 등을 위한 재취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제주직업훈련협의회,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도내 대학 등과 협력
-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창업
 - 젊은 귀농·귀촌인 중심으로 제주 정정농산물 판매·유통업 창업
 - 최근 서귀포시 열평동 사례 (제주 1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IV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3. 향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 사회·문화·교육 정주여건
 - 제주어(제주방언) 및 제주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제주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등학교 내 제주이주·정착주민 자녀를 위한 상담교사 배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시 교육청
 - 제주이주·정착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시 평생학습센터
 - 도청 내 총괄 전담부서 설치
 -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
 - 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 행정지원의 구심점 역할, DB 구축 등)
 -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 방안 모색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

IV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3. 향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 보건·의료 정주여건
 - ▶ 장기적 과제로 우수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마련
 -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
 -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 제주웰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조기 완료
 - ▶ 외국인을 위한 도내 병원들의 서비스 질 개선
 - 안내, 통역, 의사의 외국어 맞춤형 의료진료 서비스 제공 노력

감사합니다.



토론자료

토 론 문

김 정 수
(석부작공원 신비원 원장)

저는 분재·석부작(석분공예)부문 제1호 대한명인으로서 제주의 돌과 돌가루를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육지에서 내려와 제주에 조그마한 석부작 공원을 운영하는 다문화 가정이기도 합니다.

제주에서의 삶은 기후 자연여건에서 볼 때 외국에 비해 나무랄 때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주에는 너무나 많은 박물관과 제주와 어울리지 않은 관광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는 제주의 기후 여건에 맞는 관광지였으면 하고 개발을 하더라도 제주의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형태의 관광지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가령 육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 제주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당국에서도 현장을 중심으로 답사 후 전문적인 인력의 판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인 만큼 국제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야 된다고 보며, 제주와 가까운 홍콩을 예를 든다면 홍콩의 연간 관광객 인원과 제주의 관광객 인원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며 그 원인은 제주가 상대적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기존에 있는 관광지도 수준에 미달되는 곳도 없지않아 많다고 생각 됩니다. 또 입장요금에 있어서도 너무나 고가인 곳도 지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객들의 불만 아닌 불만을 들어보면 왜 제주는 입장료가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며 자기네끼리 투덜대는 소리를 가끔 듣곤 합니다.

또 안내판 설치를 예를 든다면 신비의 도로만 하더라도 신비의 도로의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무엇 때문에 신비의 도로이며 어떻게 하면 신비한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는지 그 체험방법 등 보다 구체

적이고 관광객 입장으로 가이드가 없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안내 설명서대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보다 알기 쉽게 접근하여 명시 했으면 합니다.

또, 제주관광기념 상품 역시 육지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태반이며 심지어는 외국 것들을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당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나 도민 스스로 전국 공모전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보다 확실하게 제주적인 것들 다양하게 개발하는데 신경을 쓰고 현장답사도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토 론 문

김 정 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10,406명으로 주민등록인구 576,156명의 1.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 3,719명, 국적 취득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2,158명, 유학생 926명, 재외동포 505명, 외국인주민자녀 2,013명, 기타 등이다.

지난 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1 다문화인구동태 통계자료를 보면 제주도내 국제결혼의 비율은 10.3%으로 전남, 전북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앞에서 인용한 도의 자료를 보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6년 748명이 2012년 2,158명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비율은 무려189%에 달한다. 이런 추세와 더불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이란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외국인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제주사회에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다원주의 국가 경험이 없고 오랫동안 단일민족 · 순혈주의 신화 속에 집착해온 한국인들은 현실화한 다문화사회를 수용하지 못하고 다양한 인종적 · 민족적 ·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관련정책이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은 각자의 경험과 살아온 환경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그 누구도 나와 같을 수 없다. 민족이 다르면 더 더욱 그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삶의 방식과 사고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한국 생활에서 그 차이 때문에 차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여

성가족부가 실시한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살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경험한 사람은 응답자 116,444명의 34.8%에 달했다. 상담을 통해서 이들은 한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 받아드리지 못하여 외국인으로 차별하는 현상, 경제적으로 발전한 서구인에게는 비교적 호감을 가지면서도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인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 외국인에게 보이는 무시하거나 배타적인 모습, 일부 외국인의 범죄사건으로 전체 외국인을 나쁜 사람 취급하는 한국인들의 고정 관념, 외모가 달라서 무시당한 경험, 피부색이 다른 자식을 갖고 있는 엄마의 걱정,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고충 등을 고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대다수가 한국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3D업종 등에서 종사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지만, 임금 체불, 사내 폭행, 사업재해 노출 등의 문제와 더불어 관계 법령의 제한으로 사업 현장에서 인격을 무시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사례가 많다.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는 공존하고 소통하는 사회이다. 최근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여성가족부(2012)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에 의하면 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1.17점으로 우리 국민이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외국인을 대상한 지원과 교육 등 각종 정책도 필요하지만 외국인주민을 차별하지 않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려면 다문화적 감수성, 다문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당국을 비롯한 각 기관들이 전 도민, 공무원,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들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펴가야 한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임을 감안한다면 다른 시·도와 차별 있게 외국인주민의 제주 정착을 one stop 체제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 운영할 것도 제안한다.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선진화하려면 다문화사회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도내 거주 외국인들을 정착지원을 위해 특단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토 론 문

김 창 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1955년과 1963년 사이의 출생인구)는 약 695만 명(2010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전체인구(내국인)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에 55세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은퇴기에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방문·체류 등 지역간 인구유동, ▶귀농·귀촌 등 지역간 인구이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방문·체류 등 지역간 인구유동은, 인구 성장세 둔화 및 장기적 감소 추세, 그리고 지역간 인구이동의 감소 등과 관련하여 지역활성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탐색과정을 통하여 정주인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귀농·귀촌 인구는 국민연금 등 이전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후자금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지역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역간 인구유동의 대표적인 경우인 도시민들의 농어촌 방문·체류에서 스포츠·레저 활동과 영농·영어 및 농어촌 체험 등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산지, 계곡, 바다 등 수려한 자연경관, 농경지, 들판, 어장, 갯벌 등 영농·영어 등에 유리한 환경, 그리고 농림수산물이 풍부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향후 이주를 희망하는 지역 중에서 쾌적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각종 도시적 생활편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농산어촌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농산어촌 이주·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 등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 소득창출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 일자리 마련, 그리고 부모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여건이나 자녀세대의 체험·여가·방문 환경 등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인구유동과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정착에서 제주도는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가 가진 비교우위성을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민들의 제주도 방문·체류, 제주도로의 이주와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먼저 방문·체류지역의 선별성, 방문·체류의 정례성, 방문·체류 활동, 방문·체류자의 출신지역 등 제주도 방문·체류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성차이에 대응하는 차별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특정 스포츠·레저활동을 선호하는 인구의 주요 방문·체류지역에 이들의 수요에 특화된 방문·체류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특정지역 출신자들이 집중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지역에 이들에 특화된 마을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은퇴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주·정착의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전원·휴양·여가 활동을 위한 주거공간, 영농이나 지역공동체 참여 등을 통한 경제적 활동기회,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의료·복지 시설, 문화·체육·건강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공간 등이 포함된 복합정주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부머의 부모와 자녀세대 등이 지속적인 방문과 체류, 그리고 이주와 정착이 상호 연계되면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중국인이나 일본인 등 외국인의 장기체류와 지속적인 재방문·재체류를 촉진함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 론 문

권 혁 란
(하우스 레서피 대표)

여생을 제주에서 생활하기 위해 도민이 된지 오는 3월 6일이면 4년이 된다. 오랜 해외에서의 생활을 한 경험 덕으로 제주의 정착이 어렵진 않지만 결코 쉽게 살아 갈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세계를 제주로, 제주를 세계로“의 슬로건이 무색 할 정도로 제주외적인 것을 받아들이기엔 제주인 들은 대부분 패쇄적이고 배려가 적으며 의식적으로 제주태생을 거론한다. 이곳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생태를 세계에 알리는데 있어서 모든 준비가 덜 돼있다. 기존의 형식과 의식구조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세계와 제주는 말로만 연결 될 뿐이다.

국내 최대 당근 산지(제주, 구좌)에서 생산되는 맛이 뛰어난 당근으로, 서구인들에겐 흔하게 알려진 당근케이크 (우리나라에선 흔치않은)의 레서피를 우리 입맛에 맞게 개발하여 전국에 알려지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 4년 가까이, 한림읍 귀덕리 농어촌 일주도로가의 작은 가게에서 만들어지는 당근케이크가 전국으로 보내지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먹을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큰 결심으로 제주 귀덕으로 이주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해 읍사무소를 찾았지만 “ 제주도민된 것, 한림읍민 된 것 환영 한다”는 흔한 말 한마디 없었고 한림읍에 대한 소개 책자도 없었다. 읍마다 도서관이 있지만 외지에서 와 사는 이들을 위한 안내책자들이 없다. 신거주자들을 위한 생활정보 소개서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관광지라 하지만 영문 안내 표지가 엉터리 자동번역기로 번역한 영문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고, 인편을 통해 민원을 넣었지만 예산 타령으로 금방 시정되지 않았다. 지금은 올바르게 고쳐져 있을 지 궁금하다.

제주도민 모두가 영어를 잘 알아야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영어를 잘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제주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영어권 원어민 교사들과 외국인들에게 한 번 정도는 검토를 받아 게재하는 성의는 보여 대외적으로 창피 당하는 일만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모두가 제주도가 잘 되고 한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도가 되고 세계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보물 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토 론 문

박 종 구

(농업기술원 귀농·귀촌 모임회 회장)

- 농업기술원과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및 도청 직원 일원화 기술원과 도·시청 직원이 귀농귀촌인 보다 정책 및 제도를 몰라서 더 많은 혼선과 어려움이 있다
- 귀농귀촌 협의회 구성 및 제주에 맞는 귀농귀촌 정책 수립 귀농귀촌 정책은 전국에 해당 되는 정책이다 보니 제주 실정에는 안맞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보다 편하게 이주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 학교 살리기 운동 마을 만들기 운동 등 지역이나 읍면단위의 정책 만들기 및 지원사업 마을에서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민간 차원이 아니라 리·읍·면사무소에 계획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정책을 만들어 보자. 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신화마을 한라봉마을 감귤마을 레프팅마을 요트마을 해녀마을 등 지원하는 사업을 다변화하여서 이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끌어 낸다면 많은 사람이 제주전역으로 이주 할수 있을 것입니다
-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베이비붐세대를 이끌어 보자. 귀농귀촌인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팬션 및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해서 제주에 살고자 하는데 정책이 안 맞으면 못 한다 요트나 보트를 사서 운행해서 밥벌이를 하고 싶은데 정책이나 마을에서 허락이나 등록을 못하면 운영을 못한다 그럼 돈 있는 부자세대만 위치하자 다양하게 볼거리가 있으나 입장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서 보고 나면 후회하거나 추천해 주고 싶지 않다 즐길 거리가 없다 이런것들을 귀농귀촌인들에게 개방이나 유치해 보자 많은 귀농귀촌인이 관심을 갖고 이주해 올 것이다
- 빈집 재활용하기 리사무소 활용하기 마을에 빈집이 있으나 집주인이 제주시나 육지에 있어서 활용 할 수가 없다 농어촌혜택이나 자녀교

육 목적으로 집주소를 이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 이주해서 정착 하기가 힘들다 일자리도 없고 농사기술을 기술원이나 센타에서 배우고 책으로 배워도 막상 밭에 가면 막막하다 일자리 정보가 리사무소에 있다면 가까운 동네에서 일하고 친분이 생겨서 농사 기술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리사무소에 인력을 맞기면 어느 집에 일손이 필요한지 어느 시기에 일자리가 생기는지 우리 마을에는 가용이나 수용 인력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해서 관리 한다면 귀농귀촌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상부상조 할 수 있을것 같다

- 지역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교육 귀농귀촌인들에게만 귀농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특히 제주에서는 귀농귀촌인을 범죄자 또는 도피자 파산자 사업실패자 돈 없는 가난뱅이로 취급한다 이런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를 해야할 것이다 내 자식들은 초 중 고등학생이 없으니 마을에 학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내 자식은 육지에 있거나 제주시에서 잘 살고 있으니 마을에 젊은 친구가 살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다 난 내 돈 주고 잘 살고 있으니 마을에 복지 시설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타 지역에 비해 실내수영장 헬스장 스커시 빙상장 암벽 등 도시민들을 유치하기에는 복지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만들려 하면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다 이런 일들을 교육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토 론 문

박 현 정
(모루농장 농업회사법인 대표)

생활 제주의 관광 자원화

제주는 관광산업으로 널리 알려진 천혜의 자연미관 지역이다. 제주 개발의 역사는 이러한 자산이 외부투자와 결합하여 활발한 경제의 도화선이 되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서고금 개발역사의 전철을 밟기도 하면서 남모르는 고통을 겪는 곳이 또 이곳 제주이기도 하다. 개발과 보존의 기로에서 겪는 가치의 대립과 합의 없는 정책결정은 자연경관만큼이나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생활 제주를 박물관에 가두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생활제주는 현지 제주민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에서 빚어진 남다른 모습들이다. 밭경계를 이루는 돌담, 5일장, 생활개선회가 운영하는 시골식당, 감귤 밭, 4계절 푸른 목축장, 어촌계 맛집, 주말 오름 나들이, 계절별 마을축제과 제사 등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활형 관광자원을 자연스레 영위하는 곳이 이곳 제주이다. 1차산업이 별도의 투자 없이 3차로 연결되는 현장이다. 프랑스 농촌 경제의 90%는 도시민의휴양농촌이며 지속적인 도농교류를 위한 영국의 my farm정책, 독일의 농촌체인호텔, 일본의 농가맛집이 농촌경제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컨텐츠는 지역생활을 고미술 복원만큼이나 세심히 발굴해나가는데 있다. 느리지만 세대를 거듭해 물려줄 수 있는 관광유산을 주체적으로 개발하면 제주도 마을 곳곳이 먹고, 마시고, 체험하는 생태박물관이 될 수 있다.

이미 제주도는 농어촌마을의 기반과 공동체 삶이 육지보다 앞서있다. 이제는 이러한 기반을 활성화시키고 널리 홍보해야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농가맛집지도, 마을숙박지도, 공항내 마을가공품 판매장, 마을축제장이동 차량, 제주방언수첩 등을 제주에 첫발을 내딛는 관광객이 유명

호텔브로슈어나 잠수함할인쿠폰만큼이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안내문이 되어야 한다. 제주를 떠나는 손님을 위해서는 명품 면세품, 고가의 냉동생선, 과대포장 초콜렛더미 한켠에라도 제주에서만 만들어지는 마을상품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풍광이 절경인 관광지, 문화역사가 찬란한 관광지로 제주를 내세우기에는 세상은 상상이상의 모습들로 다채롭다. 제주의 매력은 개성 있는 생활과 다양한 자연이 10분 거리에 있다는 마법이다.

토 론 문

손 이 리 나
(결혼이민자)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집 온 손 이리나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고 현재는 아이 넷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 동안 살면서 많은 어려움 한국말 문화 등 있었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생활의 불편한 점들 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 해결할 문제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1등으로 봐야 할 문제는 바로 이주여성 일자리 문제입니다. 외국여성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의 보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에 보면 이주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식당, 정소 등의 일 밖에 못 해요. 이런 일이 부끄러운 직업 아니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나이 어리고 그 나이에 맞게 좋은 직장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해주는 일자리 정소 대부분이예요. 아니면 시간 재 아르바이트예요. 하지만 우리 도 눈지 보지 않고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밖에 안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도 정직원 공무원이 될 수는 없지만 계약직정도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사람이 면 공무원등 직업을 얻기 위해 공부도 많이 하고 시험도보고 그 만큼 어렵게 가지는 직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도 그냥 해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시험도 심사도 봐야 되지만 한국사람 보다 조금 다르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 보러 가면 한국사람도 쉽게 칠 수 없는 시험을 우리 이주여성들이 잘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고용지원센터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과정을 고르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자격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격증을 받으려면 실기 시험과 필기시험을 봐야합니다. 실기는 누구

라도 노력을 하면 볼 수는 있지만 필기는 아직 까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되고 포기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필기 힘을 이주여 성들 위해서 특별하게 조금 쉽게 아니면 번역해서 해줬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도 희망이 생기고 노력 하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토 론 문

위 영 석
(한라일보 정치부차장)

최근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 귀농·귀촌인, 외국인 등 청정 환경과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된 다른 시·도 거주자들이 제주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제주로 많이 이주해 오고 있다.

감소하던 제주인구가 2010년부터 증가세가 뚜렷하다. 실례로 '08년(△2,239명)→'09년(△1,015명)→'10(437명)→'11년(2,342)→'12년(4,873)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한라일보도 이같은 추세에 맞춰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제주愛 빠지다'라는 코너를 신설해 제주에 정착한 제주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언론인 입장에서 그동안에 취재과정에서 느낀 점을 위주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취재과정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집약해보면 '지원'과 '무관심'으로 나뉘볼 수 있을 것 같다. 무관심이라는 말은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근 중앙언론에 보도된 가수 이효리씨나 MC출신 허수경, 애월에 거주하고 있는 가수 장필순씨 같은 분들은 오히려 관심을 꺼려하고 개발보다는 현재 제주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자치도에서도 제주사회에서 적극 활동하기는 원하는 정착 인사와 그렇지 않은 분들을 구분,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티파크 우제민 대표의 경우 20대 후반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명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위치한 조천읍 선흘2리에 정착해 진정한 제주사람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 영농후계자를 신청했지만 선정해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공무원들이나 마을사람들이 외지인들의 진정성을 의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귀농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가수 장필순씨의 경우 애월읍에 거주하면서 음악활동 중.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의 자연스러움이 사라져 간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

그대로 보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

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제주를 찾아 내려오는데 이들에 대한 측면 지원이 너무 없다.

제주자치도의 문화정책도 전통문화 위주로 편중,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향의 문화가 자랄 수 있도록 공연장이나 무대를 많이 만들어주고 제주도나 문화예술계가 함께 홍보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

귀농·귀촌·정착 인사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의 필요성. 각 분야별로 지원되는 제도를 한눈에 설명해주는 도우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들과의 소통을 전담할 부서도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 이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제주자치도차원에서 수합하고 각 부서별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토 론 문

장 길 남
(농업기술원 농업교육담당)

1) 현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 귀농귀촌 교육, 자금지원
 - 귀농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품목별 기초영농교육 개설
 - 초기 귀농인의 경제적 안정 및 기술 습득에 필요한 실습비 지원
 - 무엇보다도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
 - 귀농자금 지원액이 실제 금융권 대출단계에서 크게 줄어 귀농 귀촌 동기와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실행 필요

2) 귀농귀촌 지원 업무 추진체계 및 애로사항

- 귀농·귀촌 업무 전담조직 정비
 - 귀농·귀촌업무 총괄(도 본청), 귀농교육·현장실습 전담(농업기술원), 정책자금 지원·개별사업 시행(시·군·읍면), 등 조직체계 개선

※ 2013년 조직 정비로 문제 해결

3)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항

- 농어가주택 수리비 사업부활 및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 확대
- 주택, 축사, 하우스, 중고농기계 등 매물정보 제공
- 귀농자에게 빈집 무상임대 소개 및 알선

4)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 읍·면지역과 동의 녹지·관리·농림지역에 한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 제1항(귀농인 지원)

1. 농어업 경영 등 각종 정보 제공
2.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3.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
4. 농어가 주택자금 지원
5. 귀농인 농어업인턴제 사업 지원
6.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음

5) 젊은 층의 경우 자녀교육 문제로 귀농 후회

- 귀농 귀촌 활성화는 농촌학교 살리기가 관건인데 교육당국은 학교 통폐합에만 매달리다 보니 젊은 층의 경우 교육 문제로 귀농을 후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6)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귀농·귀촌정책 추진

- (실태) 기존 정책은 귀농을 생계형으로 접근한 지원시스템임
- (개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미래 우수 농업인력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 시스템 전환
 - 관심 ⇒ 준비 ⇒ 실행 ⇒ 정착 단계별 맞춤형 정책 추진
 - 기존 생계형 지원시스템에서 영농목적형, 농촌체류형, 전원생활형 등 유형별로 보완, 재정립하여 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

7) 귀농·귀촌 관련 통계 등 인프라 체계적 구축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유치를 위한 종합정보관리 제공 체계화
 - * 농업기술원, 행정시, 농협 등 개별적 정보제공 방식을 총괄 부서에서 통합정보 제공방식으로 전환(통합 홈페이지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
-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등록자원 정보 제공
- 농어촌 주택 임대 정보 제공
- 정기적 귀농 귀촌 실태조사 실시로 통계자료 구축

8) 입지여건과 특성을 살린 사회적 일자리사업 발굴 연계

- 귀농·귀촌 지역마을 사무장 제도 등 도입
 - * 귀농·귀촌인을 마을 사무장으로 채용하는 방안
- 전문직종사 유경험자, 전문자격 보유자 적극 유치로 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9)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과의 융화 프로그램 개발

- 귀농·귀촌인 마을사랑방 운영
- 귀농·귀촌인을 지역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 적극 참여 유도
-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과 1:1 결연, 멘토링제도 운영

토 론 문

조 옥 란
(결혼이민자)

1.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체계 필요

외국인의 급증과 더불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 한국사회와 사전에 합의한 공감대가 없이 진행되면서 중복된 사업,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국민과의 역차별 논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또한 많은 기관, 단체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복된 사업이 많고 또한 다문화와 관련 없는 단체에서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문화가족은 여기저기에 불려 다니는 전시형 행사 필수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그 만큼 언론이나 매체에서 다문화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혜택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국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어진 예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맞춤형 취업교육지원과 연계가 필요

- 가.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을 취업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비해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미흡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교육 참여도가 부진함
- 나.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교육이 실제 취업에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다. 교육으로만 그치고 취업연계가 되지 않은 한계
- 라. 실기 위주의 교육진행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만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 마. 또한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부진으로

교육 진행 또한 어려움.

- * 한국어교육 최소한 2년은 진행되어야 결혼이민자들의 일상생활 소통이 가능하기에 2년 동안 한국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계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함.

토 론 문

지 금 종
(조랑말 박물관 관장)

1. 귀농귀촌정책의 필요성

- 제주도는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귀포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농촌지역은 다양한 인재가 부족한 형편이다. 농촌의 사회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거주하면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립적 기반을 갖추어 줄 수 있는 인력과 일자리가 마련되어 순환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 생태계가 형성됨.
- 하지만 현실은 농업, 자영업자 등으로 인력과 산업이 편중되어 있어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자립적 순환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더 나은 삶의 질을 찾아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임. 따라서 다양한 귀농귀촌 인력이 농촌지역까지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2. 제주 이주민(귀농귀촌인)들의 의견

- 제주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으로는,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권당 정치', '육지 것이라고 부르는 차별적인 말과 배타성', '거친 운전과 주차문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는 행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행위', '적절한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 '언어소통 어려움', '익명성 보장 안 되고 사생활 침해', '제주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거주할 집구하기의 어려움', '제주지역의 정보 접근의 어려움', '세월이 가도 제주도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 '문화생활의 결핍' 등이 거론되었으나 '배타성을 못 느꼈다'거나 '이웃들이 도와준다'는 의견도 있었음. 이렇듯 의견이 상반되는 것은 시공간의 차이, 각 개인의 상대적 관계 등 개인적 경험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 이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의 지원 방안으로는 '제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정보의 소통 구조가 한 곳으로 모여졌으면 좋겠다', '제주 정착 관한 소책자 있으면 좋겠다', '제주에 걸 맞는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교육 필요', '이주자 유치 노력과 지원프로그램 필요', '행정에서 재원 마련해 귀농귀촌 지원 필요', '제주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음 좋겠다', '단기 체류자를 위한 지원 정책', '이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 정보공유센터 등에 관해 관심', '교육과 의료적인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창업지원센터가 있었음 좋겠다', '제주어 배우기 프로그램 필요', '도나 단체들이 이주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옴.

3. 여타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동향 및 정책 제안

- 귀농귀촌을 과정으로 분류하면 준비-이주-정착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임.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은 주로 이주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준비와 정착 단계의 정책이 취약한 편임. 귀농귀촌인들이 주로 호소하는 어려움도 정착을 위한 정보와 지원의 부족임.
- 육지부 지자체 약 70여 곳이 귀농·귀촌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해 교육·훈련 지원, 빈집수리지원, 소득사업지원, 자녀학자금 및 영농정착자금 지원, 의료지원, 농지임차·구입자금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 하고 있음. 여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유형과 사업 내용을 정리하고, 제주의 특성에 맞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전담 기구 및 하드웨어
 - '귀농귀촌인협회' 구성(조례 제정 필요)
 -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운영(빈집 활용)
- 소프트웨어
 - '귀농귀촌지원센터' 설립
 - * 귀농귀촌정보 포털 구축(귀농귀촌인 정보, 빈집 및 임대주택 정보, 일자리 정보, 택지 및 농지정보, 교육정보 DB구축 및 제공)
 - * 귀농귀촌매뉴얼 제작 및 배포
 - * 귀농귀촌 생활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웹 매거진 발간)
 - * 관내 투어(팸투어) 프로그램 운영
-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 * 귀농귀촌인 대상 워크숍(설명회) - 팸투어와 연계
 - * 예비 귀농인 농사체험 - 팸투어와 연계
- 각종 행, 재정 지원 정보 제공(융자, 지원 등)
- 귀농귀촌 프로보노 제도 운영(농업, 가공, 신기술, 문화 등) : 농가 및 산업시설과 연계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 인큐베이팅
- 귀농귀촌학교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 - 귀농귀촌 프로보노 제도 및 CB와 연계
 - * 생태건축교실(빈집 수리 포함) * 목공교실 * 농업교실 * 약초 가공 교실 * 문화상품 디자인 교실 * 공공미술 교실 * 관광상품 개발 교실 * 로컬푸드 교실 * 농산물 가공 교실 * 농산물 마케팅 교실 * 제주지역 이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 귀농귀촌 페스티벌 개최
- 이주민의 지역사회 자원 봉사 프로그램 운영

토 론 문

홍 창 욱
(무릉외갓집 실장)

○ 이주케이스 소개(2009년 11월)

이주당시 연령	34세	가족유무	아내1,아이1(이주후출산)
이주이유	탈서울, 세컨드라이프	이주당시 재산	전세금 8천만원
직업	도내 IT기업취업	특이사항	칼럼, 팟캐스트 운영

○ 내 주변인들의 이주연령 및 동기

- 이주연령 : 전반적으로 이주연령이 어려워지고 있음. 남자는 은퇴, 가족이 주가 많으나 여자는 홀로, 단기간 이주가 많음
- 이주동기 : 여유, 자연, 힐링

○ 이주 시 난관

- 집구하기 : 친구간에 이사시기가 집중, 최근 주택가 상승
- 직장구하기 : 양질의 일자리 부족, 게스트하우스 등 특정직업에 신규 진출이 몰림
- 네트워킹 : 지역, 기존 이주자와의 안정적인 네트워킹 필요

○ 이주에 도움이 될만한 시스템 & 프로그램

- 이주희망자가 친구간이 아니라 연중, 직접 제주에 내려오지 않더라도 매물을 확인하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
- 이주자들의 공식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취업, 매물, 네트워킹 용)
- 제주지역의 문화와 풍습을 알려주는 교육프로그램과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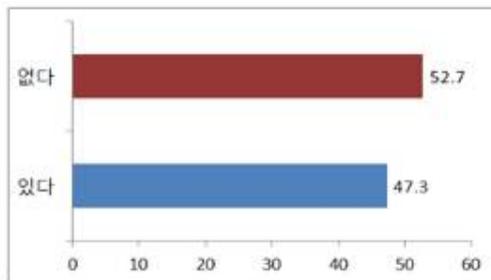
토 론 문

황 영 집
(전원요양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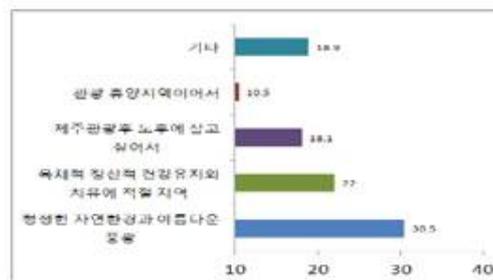
1.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복지 문제점과 개선점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의 정착주민에 대한 지원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자들이 제주를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이주는 외부자본 유입과 소비시장 확대, 고령친화산업 발전 등으로 이어져 제주 공동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실제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제주에 살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유입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다.

퇴직 베이비부머 세대 제주이주 의향



이주 의향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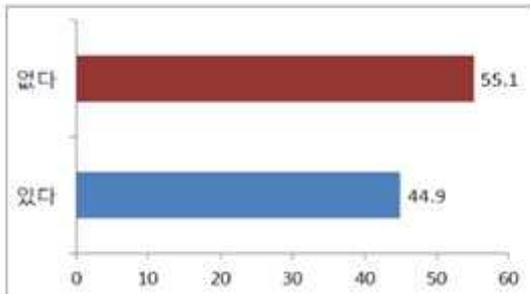


타 시·도에 살고 있는 베이비부머 은퇴자 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47.3%가 제주에 이주해 살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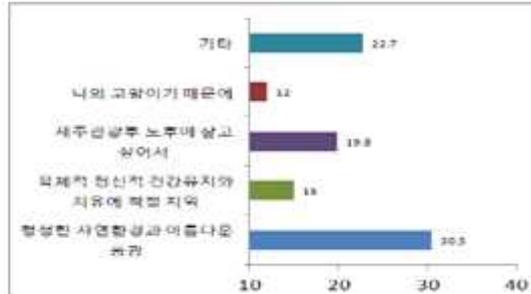
이들은 이 같은 희망을 품게 된 이유로 청정한 자연환경(30.5%), 건강유지(22.0%), 안정된 노후생활(18.1%)을 꼽았다. 반면, 제주로의 이주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52.7%)의 경우 그 이유로 고향이 아님(18.6%), 타 지역과의 접근성(14.4%), 일자리 부재(13.6%) 등을 들었다.

현직에서 활동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44.9%가 제주 이주를 희망했다. 이들은 청정한 자연환경(30.5%), 안정된 노후생활(19.8%), 건강유지(15.0%) 등을 주된 이유로 선택했다.

미퇴직 베이비붐 세대의 제주이주 의향



이주 의향 이유



제주로 이주할 경우 수반되는 정책적 지원은 다양하나 이중에서도 보건·복지 측면에서는 노인질환 맞춤형 치료시스템 마련(27.5%), 노인복지 시설 및 서비스 개선(24.2%)을 들 수가 있다. 이미 제주에 살고 있는 타 시·도 출신 은퇴자들도 제주로 이주하게 된 특별한 동기에 대해서는 청정 자연환경(20.0%), 복잡한 도시생활에 대한 자신들의 이주경험에 비취 이주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 물었다.

2.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을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높은 출생률시대에 태어났고 성장과정에서 가부장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군사정권시대를 맞이하면서 젊음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였고 어려운 한국경제를 지금의 OECD국가로 성장하게 한 장본인들이며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람되고 편안히 지낼수 있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과연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 세대 인구는 713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어릴적부터 형제들이 많았고 가난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 경쟁의식이 강했으며 부모를 공경하였다. 성장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식도 적게 낳아 기르던 시대이며 특히 남녀평등 사상이 보편화되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적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이다. 학창시절 자신 교육에 대한 열등의식을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없기에 자녀 교육에 관한 교육에 관심이 높으며 가계지출이 많아지면서 맞벌이가정이 점차 늘어가기 시작하였고 핵가족세대 확산으로 2세대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는 현상은 점차 멀어져가는 실정이다. 더구나, 의학 발달과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급기야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사회적 변화속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 남은 여생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갈망이 점차 고조화 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노후생활의 복지가 되어있는지를 다시한번점검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에도 사회적 변화는 점차 핵가족화로 노후에 자식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연금이나 보험에 의해 자립하는 노후생활 재정을 마련하고 있다. 통계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후 독립적으로 복잡한 도심지를 떠나 청정한 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 지역 중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보며, 이러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본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은 물론 건장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수립되어 있다. 노인층 인구가 늘어나자 노인층 분류도 초기,중기,말기 3단계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초기노년층은 주로 건장한 노인들로서 일자리 창출과 건강관리, 레저생활을 보장하여 인생의 삶을 추구하고 중기나 말기에 심신이 쇠약하면 노인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여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이 재정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런데 건장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지원도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노후대책을 위해 개인별로 연금이나 보험을 가입하여 자식의 도움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해가고 있으며 일부 빈곤층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신이 건장한

초기노인 연령층을 위한 시설(예:시니어하우스)을 청정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 이곳을 이용하는데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과 매월 이용요금을 책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동생활을 통하여 상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거해결과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심하고 보람찬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을 위한 적절한 일자리도 제공되면 건강이 보장되는 한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노인성질환으로 환자가 되면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자식과 함께 살다보면 예전같이 부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맞벌이를 위해 오히려 가사노동을 계속해야하고 손자까지 돌봐야하는 불편을 겪어면서 건강을 해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현행법에 의해 주거복지기능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종류와 설치목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류	시 설	설 치 목 적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노인복지 주택	노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 시설	치매, 중풍등 노인설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치매, 중풍등 노인설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기타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노인전문 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위하는 시설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게 한하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재가노인 복지시설	주·야간 보호서비스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야간동안 재가복지기관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을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
	단기보호 서비스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시간 입소시켜 보호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베이버부머 세대는 물론 그 이후 세대도 은퇴 후 건장한 노인생활을 이곳 청정지역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시설을 정부와 민간이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연구하며 점차 범국가적으로 확산하여 제주지역이 외에 국내의 청정한 곳에 이러한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여러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남은 여생을 즐겁고 보람되게 보낼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할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률 감소 효과도 있을 것이다.

토 론 문

황 준 욱
(소수연구원 원장)

1. 왜 지원이 필요할까?

<서울 사람이 제주도로 이주와 광고 아파트 단지로 이사할 때를 상상>

- 운송 수단으로 이동 거리 비슷
- 있는 곳과 만드는 곳
- 익명성 차이
- 혼자 살기 어렵고 같이 살아야 할 곳
- 팬당, 방언, 친구간
- > 외국 생활 정도의 이질성

2.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 어디서 생활을 하는가?
- 일을 어디서 하는가?
- 어떤 일을 하는가?
- 혼자 사는가/일하는가? 같이 사는가/일하는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아주 하찮은 것으로부터 중요한 것까지 다양
- 사전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때 그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중요

3. 어떻게 지원을 할까?

- 이주자의 지역, 직종, 분야, 가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른 지원을 필요
- 따라서 이주 유형을 세분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상호 소통과 이해가 가능한 공동체 구성 방법을 통해

-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제주이해를 보다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 지자체는 프로그램 개발, 공간 건축 등 앞선 입장보다는 지역민과 정주민간 협력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뒤에 선 입장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토 론 문

Marsha Bogolin
(도외국인 자문위원회 위원)

Current Situation

- In general, healthcare in Jeju is quite good, although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still create large and sometimes serious problems.
 - Health concepts and practices differ among cultures.
 - Westerners are accustomed to more privacy, more self-responsibility and more discussion with health care providers.
- Foreigners are given medications with little or no explanation.
 - Combinations of meds sometimes creates dangerous side effects
 - Doctors don't listen to patients and give no explanation. Just give prescription. No opportunity for conversation, just orders from the doctor.
 - Westerners expect to consider options with a doctor and decide themselves.
- Miscommunication regarding serious health matters creates critical problems.
 - Misdiagnosis
 - Drilling through bone with nopainkillerbecauseofmiscommunication
 - Surgery with nopainmedication
- Nursing staff is poorly trained
 - Lowest quality nurses are at general hospitals; just waiting to work at private clinics.
 - Contracting VRE from staff. Put in isolation. Little explanation. Prevented recovery.
- Hospitalization for foreigners is very difficult because:
 - Families are responsible to provide nursing care.

- § This is virtually impossible for foreigners due to work, language, and very few family members in Jeju.
- § The nurse aide (간병인) system is also very difficult for foreigners because of language and culture.

Goal

- Minor changes to the healthcare system in Jeju will make it more accommodating for foreigners.
- To attract and keep professional foreign residents in Jeju, Jeju MUST provide affordable healthcare and hospitalization for foreigners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Suggestions for Next Steps:

Forum on “Healthcare for Foreign Residents”

1. 3 hour forum, followed by dinner in central location (Jeju City or Jeju National University)
 - a. Survey institutions that hire foreigners to find best day for most to participate.
 - b. Get agreement from these institutions to give time off for attending to a reasonable number of their foreign employees, eg. those best qualified to consider this topic.
2. Invite foreign residents,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especially doctors and healthcare officials in high positions in Jeju’s major hospitals and clinics.
 - a. Advertise forum several times 1 month in advance
 - b. Send invitations to foreign residents
 - c. Encourage all to come
 - d. Give incentive for foreigners to come, eg. provide dinner
 - e. Create and display posters

3. Provide SIMULTANEOUS translation
 - a. Determine languages: English, Chinese, other?
 - b. Provide headsets
 - c. Pay interpreters
4. Select an experienced moderator and panelists who prepare 5 min. presentations on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 a. Panelists should include articulate foreign residents, doctors & hospital officials
 - b. Government representatives' role should mainly be as observers, taking notes and considering how government can help resolve current problems.
5. Suggested Format:
 - a. Plenary Session for panelists to present problems and/or propose solutions: 1 hour
 - b. Small groups of six to discuss problems & propose solutions: 45 min.
 - i. Group according to language ability. Pay bilingual participants to help interpret
 - c. Plenary Session to summarize realizations, proposed solutions, and next steps: 55 min.
 - d. Dinner for all participants together
 - i. Select restaurant that is quiet enough to encourage conversation and with table arrangement that facilitates communication, i.e. NOT several long tables, but seating 6 maximum.

Provide Seminars for Medical Staff on Understanding Cross-cultural Healthcare

- The forum suggested above will likely generate agreement on the need for this, as well as provide a first step towards this.

Provide English and Chinese Interpreters on Hospital Staff

- At least at ONE major hospital in both Jeju and Seogwipo
- In time, expand interpreter service to more hospitals
- Interpreters should be on call 24 hours per day, 7 days a week.
- Could be at central location or available by phone